

충남여성 소식지 2011년 통권 30호

충남여성 2011_30호

여성이 새로 서는 세상

Features Issue

도정에 바란다

충남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

성평등과 파트너십

성평등 지수 및 성평등 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복지이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복지전달체계
무상보육



02 | 발간사

Issue

04 | 2011년도 여성정책 성과

06 | 2012년도 달라지는 여성정책

Features Issue

12 | **특집 1** 도정에 바란다

- 충남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

18 | **특집 2** 성평등과 파트너십

- 성평등 지수 및 성평등 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예산

24 | **특집 3** 복지이슈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복지보건 전달체계
- 무상보육

Activies

31 | 참여하는 충남여성의 네트워크

52 | 충남여성의 임파워먼트

58 | 문화로 여는 세상

60 | 충남 다문화 세상

63 | 정책과제 소개

76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 CEO릴레이 포럼

78 | 충남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80 | 임신부 우선 표지판 보급 프로젝트

81 | 공공기관 미혼 남녀 파트너십 개발

Inside news

82 | 2011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활동사진

86 | 부설기관 동정

92 | 2011년 여성의원들의 도정질문

94 | 2011·2012년 사업 리스트





「충남여성」 독자 여러분,
 임진년을 맞이하여 평화와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개발원의 연구원들과 직원들은 충청남도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열심히 조사·연구하며 실현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전역을 동분서주하며 도민의 욕구와 요구를 경청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저 역시 시·군을 돌며 많은 분들에게 '성 평등'과 '지역사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충남여성」 30호에 이러한 모든 활동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2011년의 여성정책의 성과 및 2012년의 달라지는 여성정책과 함께 3가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들이 도정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도민 여러분과 정책집행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에 따른 충청남도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복지 이슈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차이를 정리했고, 충청남도 복지보건전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또한 양육의 공공화 사업으로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충남여성」 독자 여러분,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해'입니다만 여성정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평등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충남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담당 공무원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된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미흡했던 점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면서 더욱 분발하여 충남여성의 지위 및 복지 향상, 도민의 복지증진, 나아가 충청남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아끼고 늘 지켜봐주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2011년도 여성정책 성과

- 01 국가성평등지표체계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0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공고화
- 03 여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및 위상 강화
- 04 아동, 여성 성폭력 예방 제도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
- 05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 수혜 범위 확대
- 06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01 국가성평등지표체계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국가성평등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로 성차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파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가성평등지표체계는 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 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의 8개 부문에서 대표지표 20개와 관리지표 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에는 부진한 분야인 일자리 및 안전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점 의제로 선정하였고, 이 중 24개 과제를 추가하여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추가 작성한 바 있다.

0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공고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 제정되면서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이 명문화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한 정책개선 권고의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03 여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및 위상 강화

2011년 1월 UN WOMEN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및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확대하였고, UNIFEM의 기여금이 470만불(2010년 3만불)로 증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04 아동, 여성 성폭력 예방 제도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제도 강화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보급하고, '우리 지역 즐거운 등하교길 찾아주기'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지역의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

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가능하게 하였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아동 신고의무자 범위 및 친권상실 요청권자를 확대하였다.

05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 수혜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0.5 시행)을 통해 정책대상을 '출생시부터 한국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에서 '한국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변경·확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 서비스 확대를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

06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생활 안내, 생활고충 상담 등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개설하면서 총 10개 언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따갈로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1년에 총 200개소로 확대하였고,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배치 확대 등 자녀의 언어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방문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다.





2012년도 달라지는 여성정책

○ 자료 _ 여성가족부, <2012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서 발췌·정리

01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 ● 2011년 30개 지역 → 40개 지역으로 확대

* 여성친화도시 지정(40개)

'09년	2개 도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주시
'10년	8개 도시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11년	20개 도시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경기)안산시, (경기)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장흥군, (경북)영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창원시, (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제주특별자치도
'12년	10개 도시	선정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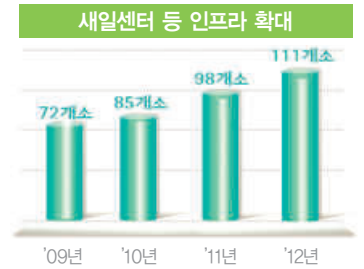
02 주요정책 및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성평등 관련 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 계획 + 제·개정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2. 3. 16 시행)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중앙정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13년 예산부터 시행)

03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지역특화직종프로그램, 광역새일지원본부에 2030 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 여성 일자리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포함)	98개소	111개소 *광역새일지원본부 11개소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 7,700명	교육인원 9,300명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 인턴 포함)	연계인원 3,800명	연계인원 4,800명 *결혼이민여성 인턴 600여명

04 해외 원정 성매매 방지 대응 강화

● ○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 여성의 인신매매성 성매매에 정부와 NGO가 연대하여 적극 대응

- 국내·외 성매매 여성 모집·알선 조직책 단속 및 처벌 강화
- 호주 한인 성매매 광고 업주에 대한 한국 입국규제 등 제재조치
-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성매매 신고 핫라인(Hot-line) 설치·운영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 교민언론,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강화

0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_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절차 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까지 방지
- 시 행 일 _ 2012. 3. 16.
- 주요내용 _
 -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신설
 -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제도화(국선번호인 지정 신설)
 - 피해자 조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확대 고지
 - 심신 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해 처벌 조항 신설

06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 ● ●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본인부담 완화(시간당 4천원→3천원)

2011년				2012년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50%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50% 이하)	4,000원	1,000원
나형(100%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나형(50~70% 이하)	2,000원	3,000원
				다형(70~100%)	1,000원	4,00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부담 완화(월 40만원→30만원)

2011년				2012년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형(50~60% 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나형(40~50% 이하)	60만원	40만원
다형(60~70% 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다형(50~60% 이하)	50만원	50만원
				라형(60~70% 이하)	40만원	60만원



2012년도 달라지는 여성정책

07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 지원 확대

● ○ ● '12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확대·강화

구분	중전('11년)	달라지는 내용('12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연령초과 자녀(만18세 이상, 취학시 만22세 이상)경우에도 해당자녀를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복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월5만원) - 만12세 미만 자녀(66,054명) <hr/>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전액) - 고등학생 자녀(55,596명) <hr/> 〈 신 설 〉 <hr/> 〈 신 설 〉 <hr/>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월5만원) - 만12세 미만 자녀(66,847명) <hr/>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전액) - 고등학생 자녀(64,134명) ※ '12년부터 교과부로 업무 이관 (학생관리 및 지원업무 효율화 목적) <hr/> ■ 학용품비(연5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77,667명) <hr/> ■ 추가양육비(월5만원)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640명) <hr/> ■ 생활보조금(월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474세대)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p>4개 시·도 시범운영 (부산, 인천, 충남, 전북)</p> <p>- 손자녀 학습도우미 파견, 가사돌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p>	<p>전국 확대(16개 시·도)</p> <p>- 손자녀 학습도우미 파견, 가사돌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p> <p>- 민간기업과 연계한 손자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강화</p>

○ 수혜대상

- 지원대상 및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조손가족

08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 ○ ● 한국어교육, 통번역 및 자녀생활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충

* 다문화가족 적응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구 분	현행('11년)	변경('12년)
한국어교육	센터당 연 280시간	센터당 연 400시간
통번역서비스	통번역지원사 210명	통번역지원사 282명
양육단계별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	80개 센터 (시범운영)	200개 센터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이중언어강사 100명	이중언어강사 106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내실화	전문인력 453명 거점센터 10개소	전문인력 653명 거점센터 16개소(全 시·도 설치)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레인보우 스쿨")	대상인원 600명	대상인원 800명

* 가정을 방문, 자녀의 알림장,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학교생활을 지원



Features Issue

01도정에 바란다

- 충남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

02성평등과 파트너십

- 성평등 지수 및 성평등 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예산

03복지이슈!!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복지보건 전달체계
 - 무상보육



01

+ 도와 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농민회에서 제안합니다.

김지숙 _ 여성농업인

1.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도, 시군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여성농민에 관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법을 개정하여 도와 시군에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조례의 시행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행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농민 정책 포럼(가)과 같이 현장에 느끼는 문제점들을 모아내고 정책화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

● 농업정책에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지난 1995년 UN 4차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채택된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잠재적 차별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도, 시·군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체 농업 예산 중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 적은지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여성농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 발작물 직불제 전면 확대

현재 여성농민의 다수가 발작물에 집중하여 영농을 책임지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농민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고정직불금 형태로 1ha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은 상대적으로 농민사 종사 비중이 낮아 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논이 가치는 다원적 가치만큼 많이 차지하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농업 직불제가 시행되어 도와 각 시군이 총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0.1~1ha의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직불제 시행으로 도내의 11만 농가 중 65%에 해당하는 7만 4천여 농가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게되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도 시군에서 전면적으로 발농업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도, 시군에서 발농업 직불제 시행 사례〉

▶ 정읍

- 정읍에서는 2009년 12월 24일 정읍시 발농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정읍에서는 2010년 시 차원에서 100% 자체 예산을 들여 관내 산간지역 발농업 이용 구조에 적합한 면적 등이 많은 점을 내세워 발농업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함. 정읍시의 경우에는 '최소 1000㎡에서 최대 1만㎡' 사이의 발농사를 하는 농가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원함.
-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돼 있고 3년 이전부터 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함. 2010년 시 자체 예산 10억 원을 들여 ha당 30만원(㎡ 당 30.25원)까지 지원하며 8375농가 3611ha의 면적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 제주

- 제주도의 경우는 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주형 발농업 직접직불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힘. 이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전락작물 또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제주도 내 농가들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전을 해 주는 제도임. 이어 2009년에는 발농업직불제 단가를 이상하고 친환경 율동채소를 대상작목에 포함하여 추가됨. 친환경 율동채소 재배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은 ha당 50만원에 기존에 친환경직접직불제 사업을 통해 지원되던 것에 추가되는 형태로 이루어짐. 2010년에는 1200ha(2009년 1063ha)의 면적에 발농업직불제를 추진함.

▶ 재검토 필요

- 2011년 1월 한·미 FTA 국회비준 이후, 정부에서는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발작물 직불제 시행한다고 밝힘. 밀, 콩, 보리(걸·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19개 품목에 대해서 ha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토종농산물·종자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오늘날 종자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미래 농업의 기반 중 하나인 종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여성농민들이 보존하고, 증식시키고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도와 시군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이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2008), 전라남도 토종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2011)가 제정되어 있다.

●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가공 협업체 지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여성농민들의 처지와 조건을 따져볼 때 넓은 규모의 농지를 갖지 못하고 농업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이 공동의 협력을 통해 조직하고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자립하여 농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형태의 시설 지원 뿐 아니라 컨설팅,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또한 소규모 가내 농산물 가공에 관한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농촌 지역의 성 평등 실현

● 여성농민의 가사노동·돌봄 노동 사회화

영농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의 역할도 다중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농민이 개인적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도시 지역에 비해 가사·돌봄 노동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시설과 체계가 부족하다. 이에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농촌 지역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농촌 지역의 성 평등 문화 확산

성 평등 교육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농촌 지역에 성 차별적인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폭력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 안에 존재하는 성 차별적인 인식과 문화를 없애 여성농민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살고 싶은 성 평등한 농촌을 만들어져야한다.

4.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

● 먼 단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농산어촌 교육지원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보육, 교육, 의료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 여성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면 농촌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민의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주여성농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이주여성농민 관련 기존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족' 중심의 정책이 우선시되고 농업인으로 정착하고 영농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농촌 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02

+ 박혜경 _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청남도에 바라는 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불편요소를 가진 여성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저희 충남여성장애인연대는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자립을 실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고용권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취업이란 스스로에 대한 자아실현과 생계유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인격적인 독립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과 노동시장의 차별에서 취업을 현실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충청남도내 기업들의 여성장애인 고용률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인 도입 추진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별 종합의료지원센터의 설치를 바랍니다. 건강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 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은 건강권에 대한 소외와 열악한 현실 때문에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매년 여성장애인 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맞춤진료, 방문검진, 응급지원을 위한 지역별 종합의료지원센터(또는 여성장애인전문지정병원)의 설치를 바랍니다. 또한 청각여성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의 의료기관배치 및 점자화된 의료서비스 안내책자 및 음성 안내서비스의 확대를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을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중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으나, 프로그램비 외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비, 인건비)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복지 최일선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원금등에 의존해서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실현해 나가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현실성 있는 운영비 지원정책 추진을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바라는 점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자리매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군중속의 소외'라는 말처럼 여성이라는 집단 안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인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앞으로 우리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3

+ 니고라 _ 결혼이주여성

충청남도에 바라는 점은?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니고라입니다. 한국에 온지 8년 되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사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들 위해서 육아와 자녀 언어 교육,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언어, 문화도 여러 교육을 배우도록 지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문제 - 저의 큰아이가 아들이고 201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외국 인이야, 너 엄마도 외국인이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했어. 네 엄마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라고 하면서요, 저의 아들이 “엄마 왜 외국에서 왔어요? 만약에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유치원에 방문하여 말씀 드렸더니 “문제가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해서 유치원을 바꿨습니다. 바꾼 유치원에서 적응 잘 하고 점점 자신 있어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우 기뻐했어요. 현재 학교생활은 잘 적응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 다문화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파이팅!



04

+ 카비타 _ 결혼이주여성

충청남도에 바라는 점은?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두 아이를 양육 하고 있는 가비타입니다. 그리고 천안모이세 꿈이평화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 대한 걱정은 누구나 부모라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더 고민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에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서 양쪽 문화와 언어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니다. 유아나 아이들이 한쪽 문화 만 조금 아는 것 보다 양쪽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언어 발달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한글 수업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면 아이들의 한글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 하고 있지만 국어는 좀 못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받아쓰기 할 때 고쳐야 할 부분을 이주여성의 국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지원체계를 좀 더 전문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지원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에서 언어소통문제와 외모 또는 생활방식의 차이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마다 다문화 교육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생긴 외모, 언어, 문화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 하는 사회가 되고 유아교육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문제는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한 문화의 서로 배려 또는 인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바라는 점은?

어느 나라의 여성이라도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언어와 생각만 다릅니다. 한국 사회의 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의 인정과 관심 필요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도와줄 이웃이 없는 엄마들에게는 당연히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며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라의 문화도 함께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주여성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당당하게 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무조건 저소득층이고 도와주어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급히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종교단체, 민간단체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및 서비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로 충분히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성평등 수준

성평등 지표 및 지수

◎ 임우연 (여성정책실 연구원)

- ○ ● 충남 성평등 지표는 가족·돌봄, 보건·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문화 부문 등 5가지 부문(Dimension)으로 분류하였으며, 산출된 평균지표 값에 각 부문별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평등 지수를 산정하였다. 통계적 가공은 성평등 지수 산정 방법인 GEI(격차 반영 - 여자/남자)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며 지표별 차이(difference) 혹은 성비(ratio)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인구비례를 반영하였으며, AHP(계층적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으로 부문별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 ○ ● 산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 성평등 지수 값은 64.49(완전 성평등 : 100)로 나타났다.

* 충남의 성평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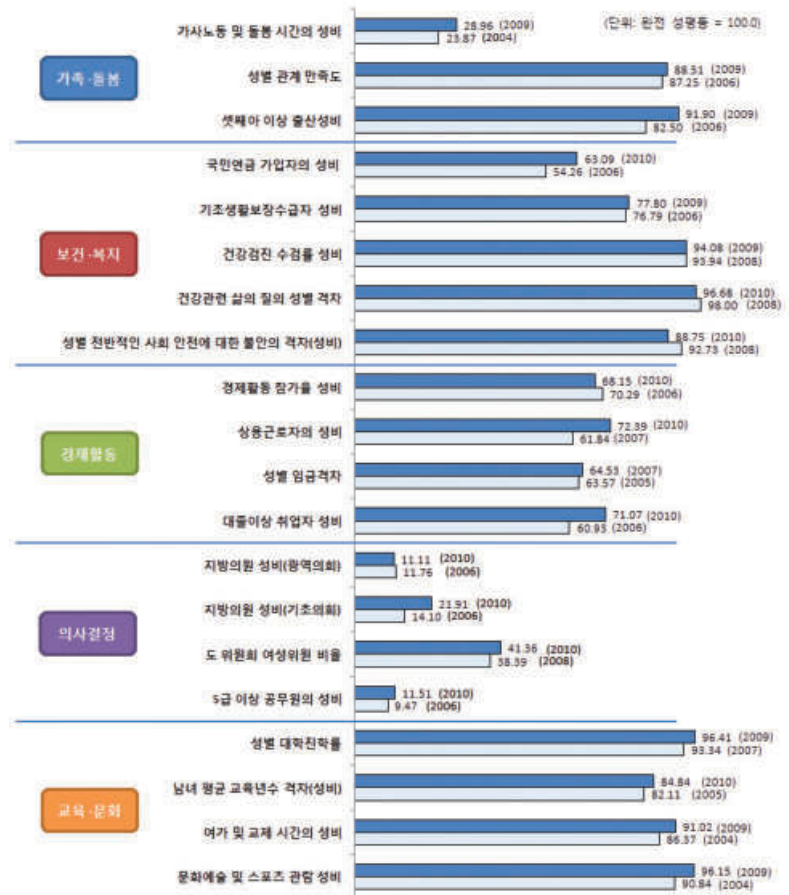
단위 (평등 지수 : 100)

※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 ○ ● 2011년 현재 충남의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교육·문화 부문으로서 성평등 지표 값이 92.11로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21.47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서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충남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남녀의 동반자적인 새로운 정치·행정의 패러다임이 확립되어야 한다.
- ○ ● 지수 산정을 위해 선정된 5개 부문 성평등 지표는 아래와 같이 모두 20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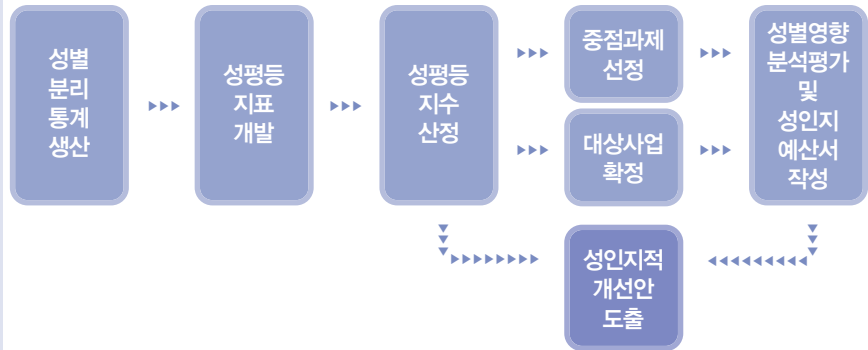
*** 충남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 ○ ● 향후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와 정책 간의 연계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 한편 성평등이 실현되는 부분의 해당 지표는 과감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여 대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시계열적인 점검과 다양한 지표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성별 분리가 필요한 통계를 발굴·생산해야 한다. 아울러 성평등 지표 측정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 지표체계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 지수 활용과 성평등 정책**



성평등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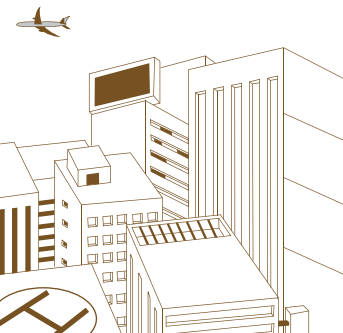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 김중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 ○ ● 도로 및 건물 등을 지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이고,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이듯이 성별영향평가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고, 2011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2011.9.15.) 2012년도부터 적용된다.
- ○ ● 2012년도부터 적용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와 법 제정 이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6p참조)
-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성별영향분석을 하여야 하고, 성별영향 분석이 제도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 결과서를 여성 가족부에 제출하고 분석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례 및 규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2013년도부터 실시될 성인지 예산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의 (제2조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성별영향평가는 법적으로는 사전평가였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사후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분석평가의 대상 (제5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시에 성별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추가 됨(의무적)
분석평가의 시기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시의 성별영향 분석은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함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 ①, 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분석평가 교육 (제15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의무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제14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제10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은 언제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 수행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 ○ ● 그동안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시행돼 오던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도 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수행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근거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시작 50일 혹은 40일 전에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2013년도 부터는 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송미영 (복지 · 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성격을 잔여적(Residual) 혹은 예외주의적(Exceptionalism))으로 규정했을 경우, 사회복지정책 대상은 특수한 집단이나 계층이 된다. 제도적(Institution) 혹은 보편주의적(Universalism)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에 포함된다. 즉, 보편적 복지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스웨덴, 덴마크 등과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기초로 복지대상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를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다. 미국이나 한국 등은 정치체제상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강조되고 있다.

● ○ ● 그러나 현대사회의 노령(aging), 보육 및 양육부담, 돌봄기능 약화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증가함에 따라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지는 제도적 혹은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사회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이다.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확대된 예로서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들 수 있다. 그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다. 그러나 국회가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복지제도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결과이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로 복지대상이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복지제도가 발전하기도 한다.

● ○ ● 최근, '무상의료문제'에 대한 복지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의료복지에 대한 참여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무상의료방안을 제시하였다. 집권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현재 약64%)까지 높이고 환자본인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공약을 확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제로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시각은 민주통합당의 방향에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지불제도에 대하여 병원을 갈 때마다 돈을 내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에서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질병별로 정해진 금액(예를 들어 맹장수술은 220만원, 백내장은 50만원 등 가격결정)만 내는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한해 건강보험공단 지출을 병원들과 미리 협상해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액계약제(의사들에게 연간 얼마를 제공할 금액을 사전에 계약)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상의료를 추구한다면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라고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2년 1월 13일, 한국일보). 의료복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향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 ○ ●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으나, 이념적 논쟁보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비교할 때 복지재원인 조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으로 논할 경우, 복지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에 맞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적 공존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사업을 중심으로

◎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보건 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와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개편이 지방정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과 보건업무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연계가 미흡하여 복지보건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복지보건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 복지보건정책을 사업, 예산, 평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의 부서별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복지보건사업 예산 변화 추이와 부서별, 자원별, 기능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았다. 복지보건사업의 수준은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정부 합동평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 ○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은 5개 과(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의약안전과)의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총 489개 사업으로, 노인분야 55개 사업, 출산과 보육분야가 각각 15개와 26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보훈분야 14개 사업, 생활보장분야 30개 사업, 아동분야 53개 사업, 장애인분야 84개 사업, 보건분야 142개 사업, 식품 및 의약품분야가 각각 40개 사업과 23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 ○ ● 2011년도 본예산에 제시된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61,455백만 원이며, 충청남도 기능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구성비는 기초생활보장이 11.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청소년 6.28%, 보육·가정 및 여성 4.24%, 취약계층지원 2.42% 순으로 나타

* 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최은희 외, 2011)를 요약한 것임

났다. 자원분담별 복지보건예산 현황은 국비 64.18%, 도비 16.51%, 시군비 18.9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분야를 제외한 복지사업비의 지원방식을 보면, 직접지원의 비율은 61.31%, 간접지원은 38.69%로 나타났으며, 직접지원의 비율 중 현금급여의 비율은 57.83%, 현물급여의 비율은 3.48%를 보이고 있어, 현금급여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충남의 복지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한 2008년 실적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복지총괄 영역, 보육은 지속적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으며, 아동·청소년(‘나’ 등급), 장애인(‘나’ 등급), 지역사회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가’ 등급)은 3년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노인복지와 의료급여는 2년 전부터 한 등급씩 상향조정되었으며, 자활영역은 ‘다’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향되었다가, 2011년도 ‘나’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이러한 결과는 충남이 전국합동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와 보건분야는 전체적으로 ‘나’ 등급으로 좀 더 개선해야 함을 의미하며, 평가지표의 30% 정도만이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준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복지보건 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복지선진국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 ○ ● 충청남도의 복지보건사업을 진단한 결과,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업무를 연계하며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서로가 불편해 하면서도 이러한 벽을 제거하려는 시도도 전무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간, 민간간, 공공과 민간간 협력이 요구되며, 복지보건사업 및 서비스의 생성에서부터 수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복지보건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 ● 즉, 복지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에서는 복지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연계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민·관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보건서비스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전산망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복지인력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크게 8가지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초조사 및 복지통계 DB구축, 복지서비스 전달과정 관리체계 마련, 기존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에 따른 환류 및 역량강화, 제도 및 매뉴얼 개발, 민간역할 부여와 홍보 등 이다.



협치로 시작한 양육의 공공화 충청남도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현

● ○ ● 충청남도에서는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모의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셋째아 이상 아동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 ○ ● 충청남도 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매년 2,500~2,600명 정도로 만 5세 이하는 15,000명 내외이다.
- ○ ●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만0세 394천원 ~ 5세 177천원이 지원된다.

● ○ ● 이러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부담하며,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2011년 보육분야 전국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2011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보육료 청구일 현재 충남도 내에 주소록 두고 충남도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셋째아는 입양아, 쌍둥이 및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셋째아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나 방문 등의 상담 후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자임을 알리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된다.

NEWS IN

본원소식

- 참여하는 충남여성의 네트워크 | 31
- 충남여성의 임파워먼트 | 52
- 문화로 여는 세상 | 58
- 충남 다문화 세상 | 60
- 정책과제 소개 | 63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 CEO릴레이 포럼 | 76
- 충남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 78
- 임산부 우선 표지판 보급 프로젝트 | 80
- 공공기관 미혼 남녀 파트너십 개발 | 81



NEWS IN

참여하는 충남여성의 네트워크



- 함께하는 천안 여성들의 유쾌한 소통 - 천안시
- 여성들의 풀뿌리 활동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공주시
- 참여하는 충남여성 네트워크 보령시 참여넷! - 보령시
- 여성의 자원활동과 우리 마을 만들기 - 아산시
- 서산 여성 활동가들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 - 서산시
- 논산지역 여성 활동가의 우리 마을 만들기 - 논산시
- 여성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계룡시
- 당진군 참여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 당진군
- 서천군 여성들의 연대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 - 서천군
- 활기찬 청양을 위한 여성들의 소통 - 청양군

천안시

함께하는 천안 여성들의 유쾌한 소통

◎ 김영주 (여성정책실 선임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 장 소 _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 참가자 _ 33명(21단체 29, 도의원 1, 시의원 1, 공무원 1, 교수 1)
- 취 지 _
 -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성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 시·군의 여성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의 장을 마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각 시·군의 여성 활동가들이 상호 소통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업 평가 _

- 01 전반적으로 지역 여성들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02 참여넷이 유지·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03 참여넷 참여 구성원 및 참여 단체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
- 04 상호소통 및 공동의 목적 의식/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작업, 사업들이 필요.
- 05 참여넷에서 같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

★ INTERVIEW ★

+ 정혜임 _ 천안여성회 대표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참여넷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의 여성운동의 주소와 여성단체들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 여성운동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각 단체(기관)별로 활동(사업)방식이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여성운동의 활동 깊이가 더해진 장점은 분명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단체들끼리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늘 마음 한 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살기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성주류화 사회를 행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천안 지역의 여성단체들끼리 자주 소통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우리는 하나”라는 마인드가 현실점의 여성 활동가에게 제일 절실한 것 같습니다. 뭉치면 더 커지는 것이 운동의 원리인데, 요즘은 뭉치기가 너무 힘들고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 단체의 개별적 요구가 아닌, 여성운동의 큰 주제로 함께 모여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마인드 자체가 나보다는 더 큰 우리의식(연대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 여성단체 활동가들 먼저 우리가 되어 산을 넘는다면 없던 길도 열심히 땅을 밟아 길을 내겠지요? 그 길은 바로 여성운동의 길입니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여성의 조직화, 그 힘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는 둘째까라면 서러울 정도의 중요한 여성의제가 되었습니다. 참여넷은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할 여성단체들의 모임기구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의 여성인권, 지위향상과 여성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통기구로 존재하여, 천안 지역에서 여성 관련한 일이 터졌다 하면 참여넷 모임에서 지혜를 모아 대응할 수 있는 힘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공주시

여성들의 풀뿌리 활동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김숙이 (여성정책실 연구원)

- 일 시 _ 2011년 8월 1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_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
- 참가자 _ 공주시 여성 활동가 약 20명
- 취 지 _
 - 공주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및 의제 발굴 및 여성 활동가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
 - 다양한 영역에 속해 있는 여성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장 마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 수행



■ 사업 평가 _

- 01 공주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성의제에 대해 공유하고 관심을 확산하였음.
- 02 공주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의 다수 참가로 활발하게 교류함. 한국지적 장애인복지협회 공주시지부, 농업대학, 친환경리더연구회, 전교조 공주시회, 곰두리 봉사회, 의당면 적십자회장 등 참여.
- 03 공주시 여성 활동가들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 자리에서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공감하였으며 후속 모임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음. 간담회를 통해 공주시 여성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반을 다졌음.
- 04 남은 과제로 간담회에 대한 평가회의를 마련하여 공주시 참여넷에 대한 후속 계획 논의를 진행해야 함.

★ ★
INTERVIEW

+ 한준혜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충남이든 지역이든 여성운동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교류와 연대를 하기 어렵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다.

뜻이 같은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부드러운 변화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주도해야 한다.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착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작은 생활 속 실천이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사회의 주체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각인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참여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지역마다 구성원 실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넷에 참여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제출해서 공통의 주제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생한 생각을 펼쳐서 사업화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성영상회를 참여넷에서 묶어서 영화상영 실무가 아닌, 사전에 영화를 매개로 참여넷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지역의제를 개발하여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지역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 훈련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치세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과 참여민주주의 실현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보령시

참여하는 충남여성 네트워크 보령시 참여넷!

◎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_ 보령시 대천5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참가자 _ 보령시 여성 활동가(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사회, 여성의원, 공무원 등) 28명
- 취 지 _ 보령시 여성의 연대 및 협력을 기초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여성의 역량강화 및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여성의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현안 및 여성문제 담론의 장 활성화
 - 지역의제에 대한 대안모색



■ 사업 평가 _

- 01 보령시 참여넷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령시청 및 기존 단체에 문의하였으며 이외에 발굴을 통하여 참여넷을 구성하였음.
- 02 참여넷에 관심이 있는 보령시 여성활동가로 발굴된 집단은 지역사회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참여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정협회, 의용소방 및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및 의원으로 기존에 단체활동을 하는 여성이 참여넷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03 참여넷 첫 모임을 보령시 동사무소의 주민지원센터에서 갖게되어 주민자치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었음.
- 04 보령시 참여넷 참여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었으며, 참여넷을 통하여 서로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었음. 집단간 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유의 업무 이외에 공통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되어 향후 지역사회 내 활동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05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존 참여넷 참가자의 공동욕구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INTERVIEW ★

+ 김은정 _ 충남 보령시 보령햇살 작은도서관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각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척 인상 깊게 느껴졌네요.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보령햇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저의 가치관은 독서를 통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사고력, 창의력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독서를 통한 학습 수용 능력 증대와 스스로 목표를 정해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또래 집단을 통해 문제 해결 경험을 인식하고, 공동체 문화와 함께 삶의 형식을 배워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충전하고, 표현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다문화를 차별 짓기보다는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마음을 갖게 하고, 보다 힘차게, 긍정적으로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참여넷'이 비타민제가 되어 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

여성의 자원활동과 우리 마을 만들기

◎ 안수영 (여성정책실 연구원)

- 일 시 _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장 소 _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원 소강당(4층)
- 참가자 _ 아산시 주민, 지역 단체 활동가 등 30여명
- 취 지 _
 - 충남의 여성들은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벌여 왔음
 -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현안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스스로가 직접 논의하고 자신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함
 - 아산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한 아산시 여성들 간의 정보 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연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 평가 _

- 01 여성들이 지역의 현안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첫 단초가 됨.
- 02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지역 여성의 자원활동 경험을 나누고 이를 어떻게 묶어 낼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음.



★ INTERVIEW

+ 윤애란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모임들의 가치실현과 의미 부여 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봉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운동의 특징과 방향과 성격들을 나눔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제외하면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상태로 지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과 경험 등을 통해서 자기가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 하면서 주인으로서 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을 수 있는 교육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전문적인 기관에서 추천하고 리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주어지면 좋겠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하나의 기획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 교육하고, 다양한 활동들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과 정보들이 참여넷에 지원되면 좋겠다.

서산시

서산 여성 활동가들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

◎ 우복남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_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가자 _ 서산시 여성 활동가(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사회, 여성의원, 공무원 등) 15명
- 취 지 _
 - 서산시 여성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 서산시 여성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의 장을 마련
 - 본원에서는 서산시 여성 활동가들이 상호 소통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발 표 _

- 01 서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여성의제 - 김영애(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산지부)
- 02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산 지역사회 만들기 - 송태연(청소년성문화센터)
- 03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 김영옥(서산한아름지역아동센터)
- 04 학부모와 함께하는 서산교육공동체 만들기 - 이은애(서령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 0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유부곤(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 서산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기 - 김은진(다문화가족)
- 07 나눔과 봉사의 서산 만들기 - 손금남(서산시 자원봉사센터)

★ INTERVIEW ★

+ 유부곤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국내외적으로 여성들의 역량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낀다 고나 할까,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저는 과거에 여성 활동가로서 지역사회 문제 특히 교육과 청소년 문제, 환경 문제 등에서 열심히 활동해 오다가 근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마침 이런 모임의 자리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리를 펴고 편안히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여넷(이하 마실방)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답니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마실방 모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과정이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이 소통으로 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위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는 따사로운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서산 참여넷(이하 마실방)은 아직은 장작불을 지피기 위한 작은 불씨 정도입니다. 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이 불씨들이 옮겨 어떠한 바람과 비가 들이 친다 해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활동처에서 열심히 불꽃을 피우고자 하는 불씨들을 모으는 작업이 우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환경, 교육 보육, 정치,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이 마실방이라는 따사로운 방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그분들의 활동 이야기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여성의 관점으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마실방을 꾸리고자 합니다.



논산시

논산지역 여성 활동가의 우리 마을 만들기

◎ 임우연 (여성정책실 연구원)

- 일 시 _ 2011년 12월 6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_ 논산 YWCA 소강당(3층)
- 참가자 _ 논산시 주민, 지역 단체 활동가, 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
- 취 지 _
 - 충남의 여성들은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벌여 왔음
 -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현안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스스로가 직접 논의하고 자신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함
 - 논산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한 논산시 여성들 간의 정보 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연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 평가 _

- 01 후속 모임을 통해 논산시 참여넷을 어떻게 묶어 낼 것인지를 계획하기로 함.
 - 논산시 참여넷 운영 방향과 방식, 주요 대상,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내용, 실행 방법 등은 후속 모임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논산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후속 모임에서 구체화하기로 함.
- 02 논산시장의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 표명을 전달받음.
이를 반영하여 논산 지역 여성들의 의제 발굴 활성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됨.

★ INTERVIEW ★

+ 전영실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인류역사 전체로 보면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공업화가 촉매가 되었고, 지식사회로의 이행은 정보화가 촉매가 됨을 나타낸다. 현재의 <정보화>라는 특징은 지식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속성이라는 뜻도 된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구상과 발전적인 면에서 한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여성참여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참여넷을 참여하면서 나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면 행복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세계화시대의 지식사회에서는 세계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경쟁력의 무기가 될 것인데 이러한 세계문화에 대한 경쟁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앞선다. 즉, 유연하고 창조적인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될 것인데 이러한 지식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앞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취업이 저조한 편이다. 뛰어나고 지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이 많다. 하지만,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멸시를 받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의 지역사회는 여성들의 조직된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참여넷은 여성이 있는 가정의 밖에서부터 끄집어 내는 개발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사회참여할 기회와 능력발휘의 영역과 정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장치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룡시

여성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권금상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원)

- 일 시 _ 2011년 9월 2일(금) 10시 ~ 12시
- 장 소 _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 강당
- 참가자 _ 계룡시 여성 활동가
- 취 지 _
 -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 내용파악과 여성의 관점에서 대안 모색
 -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
 - 본원에서는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상호 소통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업 평가 _

- 01 계룡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구성과 내용과 지역의 특성, 어려움과 지향점 등을 파악하였음.
- 02 계룡시 여성 활동가들의 협력체계 필요성에 공감함.
- 03 계룡시 여성정책의 파트너로서 추후 후속계획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유함.
- 04 군가족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한 지역사회의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INTERVIEW

+ 송현경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여성 정치인으로 입문하여도 지역에서 남성의원들과의 또 다른 관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수록 하소연을 할 곳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곳도 없어 활동할 때마다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정당과 정파를 중심으로 모인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지역 현안과 실정에 맞게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만 있다면 남성 정치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숨은 저력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계룡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여성 단체들이 물론 있지만 시민들의 입이 되고 귀가 되는 자발적인 시민 단체가 없다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좋은 정책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관련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이미 충남 지역에도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서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풀어 가며 소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여성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충남의 여성 정책 연구를 위해서라도 서로간의 차이를 찾기보다 서로 공유하여 함께 정치참여에 공감할 수 있는 모임을 제안 합니다. 또한 형식적이지 않는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이슈 및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 단체들의 연대활동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리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별 특성과 우선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학계 및 여성 소모임까지 범위를 확대해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 틀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군

당진군 참여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_ 당진 여성의 전당 2층 회의실
- 참가자 _ 22명
- 취 지 _
 - 당진 지역 현안 및 여성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성이 네트워크하여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함
 - 당진 지역 여성 운동 활동가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향후 당진 여성 운동의 방향, 이슈, 방안 등을 논의함



■ 사업 평가 _

- 01 지역 여성의 활동 방향
 -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여성 네트워크가 필요함.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는 여성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 02 참여넷 구성
 -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의미부여와 목적의식과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참여넷에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함).
- 03 당진에서의 여성 활동 방향
 - 참여넷을 단체나 기관으로 하지 말고 개인을 참여하게 하자고 제안함.
 - 당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함.

★ ★
INTERVIEW

+ 임진경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참여넷을 참여하면서 내가 살고있는 당진 지역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죠^^
솔직히 두 아이의 엄마로서 바쁘게 살다보니 내가 살고있는 당진군이... 아니 이젠 당진시네요. 당진시의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무심히 지나치곤 했었는데요. 조금 더 관심과 어떠한 점이 우리 당진시에 발전이 될수 있을지 고민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관심을 갖게 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더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여성 활동가로서라기 보다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당진군이 시로 발전되었기에 조금 더 여성과 아이들의 쉼터 공간이 많이 생겼음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 나는데 정작 아이들과 엄마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현실이네요. 또한 도로도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보행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 등하교는 물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엄마들에게도 위험한 도로가 많아요. 이런 점은 빨리 시정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 아직 까지도 지역자체 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투자해서 봉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음 하는 작은 바람도 있어요^^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2012년 당진시 참여넷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당진이 시로 발전한 만큼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참여넷을 더 활성화 시켰음 하는 바람입니다.



서천군

서천군 여성들의 연대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

◎ 송미영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2시 ~ 5시
- 장 소 _ 서천군 여성회관(문예의 전당 2층) 교육실
- 참가자 _ 서천군 여성 활동가(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사회, 여성의원, 공무원 등)
- 취 지 _
 - 민간차원의 지역 여성, 공공차원의 여성의원,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여성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서천군 지역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도모함
 - 서천군의 여성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의 장을 마련함
 - 서천군의 여성 활동가들이 상호 소통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함



■ 발전 방안 _

- 01 여성문화센터 개소하면 지역의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거나 강사 초빙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받는 방안.
- 02 원래의 목적대로 참여넷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03 서천군 참여넷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임. 첫 단추는 너무 무겁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함.
- 04 2012년 "여성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 INTERVIEW ★

+ 최애순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여 자신들의 일을 발표하고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물론 몇몇 단체들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에 그쳤었다. 참여넷을 통해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 조직의 성격과 하는 일 그리고 구성원 등 소소한 부분까지 알 수 있었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 복잡한 것처럼 조직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공감하는 부분들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남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아직은 남성을 앞세우고 여성은 뒷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영농교육을 받거나 자기계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실행력이 강한 여성으로 빠르게 변화된다.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여성농업인, 이주여성, 장애우, 고령자들이 보호받고 지역의 곳곳에 부드러움으로 스며들어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희망이 생기면 좋겠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우선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여성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서천군 전체 모임을 구성하여 각 조직의 특성을 살리면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들이 단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건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양군

활기찬 청양을 위한 여성들의 소통

◎ 김성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 일 시 _ 2011년 9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 5시
- 장 소 _ 청양 문화예술회관
- 참가자 _ 청양군 여성 활동가(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사회, 여성의원, 공무원 등) 34명
- 취 지 _
 - 청양 지역 여성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
 - 청양 여성이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의 장을 마련
 - 청양의 여성 활동가들이 상호 소통하고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업 평가 _

- 01 청양여성이 지역의 현안과 여성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공감.
- 02 참여넷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간사를 선출함.
- 03 참여넷 모임 초기는 서로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므로 월 1회 모이기로 함.
- 04 이후 모임에서 현재 청양의 현안인 '호수돈 재단 및 청신여중 정상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INTERVIEW ★

+ 한미숙 _

첫째, 참여넷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동안 나름대로 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대충 알고 지냈던 사람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그 회원이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역의 문제 발생에 따른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의논 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좋았다. 또한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 모임을 통해 여성들도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나 혼자야 아닌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게 되어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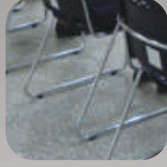
둘째, 여성 활동가로서(여성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좁은 지역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넓은 세상을 내다 볼 줄 알게끔, 지역주민들에게 의식에 변화를 주어 발전하는 신명나는 청양이 되기를 원한다.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걸다리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 하는 성별 차별이 아닌 능력을 기준삼아 적체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면 변화의 바람이 일지 않을까 싶다.

셋째, 2012년도 참여넷의 방향은?

첫째, 회원 정비를 한다. 명단만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고 참여넷에 뜻있는 신입회원을 영입하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해야 할 것 같다. 둘째, 지역 내 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는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협력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셋째, 군정에 관심을 갖자. 지역 현안을 알기 위해서는 군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회기 때 방청하여 의원들의 회의 태도 및 지역민을 위한 일처리 능력을 배워보고, 의원들이 하는 일에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군의원들이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싶다.





충남여성의 임파워먼트



01 경력단절 여성 취업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 INTERVIEW ★

직업체험강사 **공경희**입니다.

우선 전국 최초 직업체험강사라는 직함과 천안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직업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천안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그 기간은 짧았고, 결혼 이후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 하길 바라는 남편 때문에 “00아내”, “00엄마” 평범한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15년을 살았지만 알 수 없는 낯선 허전함과는 늘 마주치곤 했었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단어로도 표현키 어려운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즈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 주었던 “경력단절 여성 취업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직업체험강사(160시간 이수) 교육생 모집 안내를 받고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란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직업체험강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직업체험강사, 취업정보전문가 직업상담원으로 천안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 졌습니다.

첫째, 취업한 이후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교육과정 수료 직후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할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취업이 결정 되었습니다. 출근 후 바로 직무연수, 감사자로 준비로 인한 야근, 출장, 토요일은 중·고등학교 직업진로수업 진행 등으로 집을 비우거나 늦게 퇴근하는 횟수가 많아 졌고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 만큼 육체적으로도 피곤이 누적되어 집안일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만 갔고, 급기야 사회 진출을 반대하던 남편으로부터 직장을 그만두라는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까”란 갈등도 잠깐 있었지만 사회 진출을 꿈꾸면서 준비했던 열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관과의 약속도 무책임하게 파기할 수 없었기에 가족들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되도록 퇴근 후 일을 만들지 않았고 주일마다 특별 요리를 준비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4개월이란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 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의

01



협조와 응원에 힘을 얻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하면서 얻은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직업과 진로의 중요성을 따로 피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 가장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직업과 진로를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 왔고 지금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중·고등학생, 취업캠프에서 만났던 대학생, 센터로 구직 상담 오셨던 경력단절여성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성이 없이 막연함을 안고서 저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탐색 없이 진로와 전공이 선택되어진 교육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자아 탐색을 통하여 진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통하여 생애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한 진로를 처음으로 찾게 되었다며 신기함과 행복함으로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 일에 자부심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직업과 진로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직업체험강사” 직함과 또 하나의 직함 “취업정보전문가 직업상담원”으로서 항상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개인에게 맞는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행복을 만들어 주는 직업을 가졌다는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저는 달려 봅니다.

달리면서 만나게 될 예상치 못할 장애물도 거뜰히 해결해 주는 ‘킵핀’ 처럼!!

★ INTERVIEW ★

직업체험강사 연은미입니다.

첫째, 취업한 이후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현재 직업체험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정규직이나 임시직에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강의의뢰가 들어오면 직업체험강사협회에 계신 선생님들이 서로의 시간을 조정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천안의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맡은 날부터 가슴이 설레고 수업준비에 바빴습니다. 직업체험강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들었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지속적인 스터디를 통해 많은 준비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업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입니다.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간간히 강의의뢰를 받으면서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같이 늘어져 있던 삶이 팽팽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냥 흘러보내던 모든 것들이 수업과 연계되어 눈에 들어옵니다. 웃고 넘기던 드라마도 등장인물이 앞으로의 진로를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면 “옳지, 이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꿈(진로)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해줄 수 있을 거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다니면서 보이는 간판도 아이들에게 수많은 직업에 대해 설명해줄 좋은 소재로 보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이 나에게 새롭고 재밌는 삶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과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아져 내 아이들과 살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으니까요,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살림을 잘 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지지 않은 삶 - 훌훌 힘들게 불어 숨은 가뭄지 몰라도 바람이 들어가 탱탱해진 풍선을 보면 뿌듯하고 좋은 것처럼 지금의 내 생활이 좋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구조와 취업문제, 실업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업취업강사로서 내 자신이 당당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고, 직업취업강사로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자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하면서 얻은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가슴이 설레다는 것입니다. 주부로 살림하면서 좋은 물건 보면 사고 싶고 예쁜 집 보면 나도 그렇게 꾸미고 싶고 하는 욕심은 나지만 가슴이 설레

02



였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가슴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배운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기쁩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가르친 내용이 지금! 당장!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웅변이나 변혁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그 사람의 가슴에 흐를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부가 사회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래도~'라는 오기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나와 같이 힘들었던 주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보면서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디더보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의 내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기만 했는데 지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에게 긍정적이 되었다는 것, 꿈을 품게 되었다는 것 - 이것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입니다.

02 의정모니터 교육

◎ 임우연 (여성정책실 연구원)

● ○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의정모니터를 양성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양성교육”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 ○ ● 여성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환류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예산, 주민참여사례, 생활정치, 여성 유권자의 역할 등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19일에는 충청남도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본 회의를 방청하였다. 의정모니터 양성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향후 충남 여성들의 정책참여의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지역순회상영프로젝트

9090
시네마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나눕니다
어울림을 만듭니다11월 30일(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
마음을 여는 여성영화 상영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할머니와 란제리>

+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과의 대화

계룡산에서 만나는 9090시네마

80세 할머니의 신나는 도전기!!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유쾌한 그녀들의 빈란 <할머니와 란제리>

드라마 | 감독 베틀나 오베롤리 | 2006년 | 89분 | 스위스 | 전체관람가

남편을 잃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숙웃 가게를 열려는 마르타.

80세 할머니 마르타를 주인공으로 스위스 작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마르타와 마을 남자들의 갈등을 유쾌하게 그린 수작.

시골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맞서 숙웃 가게를 준비하고 지키려는

마르타와 친구들의 도전기를 통해 개인의 독립과 자긍심은

나이와 성을 불문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통쾌하게 그려냈다.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나이를 뛰어넘는 할머니들의 꿈과 열정, 도전을 담은 영화 <할머니와 란제리>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과 함께 감상하고,

나이 들어가는 각자의 삶을 바라보며

나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최



공동주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후원



여성영화를 충남에서 만나다!

감성 소통 + 즐기며 배우며

◎ 김숙이 (여성정책실 연구원)

● ○ ● 2011년 충남에서는 여성영화를 매개로한 만남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영화는 1997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서울에서 국제여성영화제 형태로 소개되어 현재는 전국 중소도시에서 여성영화제가 개최되어 상영되고 있다.

● ○ ● 충남에서 가장 먼저 여성영화제에 주목한 곳은 천안시로서 2010년부터 '천안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 여성주간에 4일간 10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 세미나, 사진영상제작교실, 다문화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선보였다. 천안여성영화제는 천안시가 지원하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체'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영화제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 관객들의 호응도 커서 매 상영작마다 매진되었고 총 1,000여명이 영화제를 찾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화제를 찾은 관객 가운데 여성 75%, 남성 25%였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가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17%, 30대 15%, 60대 이상 14%, 40대 10%, 10대 8% 순으로, 예상보다 고연령대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 ○ ● 천안여성영화제는 지난 2년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영화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영상제작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여성영화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여성문화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2013년에는 단편영화경선 공모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천안여성영화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져 갈 것으로 기대된다.

● ○ ● 또한 공주 지역에서는 10월 ~ 11월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주대학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발전연구원 등에서 각각 여성영화상영회가 이루어졌다. 이 상영회는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춰 제작한 여성영화를 지역에 소개하여 주민들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문화매체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 ○ ● 11월 30일에 진행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최한 '계룡산에서 만나는 GOGO 시네마'에는 인근에 사는 여성 노인 등 지역 주민들과 직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나이를 뛰어넘는 할머니들의 꿈과 열정, 도전을 담은 영화 '할머니와 란제리'를 감상하고 각자 나이듦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해경 집행위원장을 초청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나누며 여성과 노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충남 다문화 세상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 송미영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 ○ ●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회적 현상이다. 충청남도에도 지역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10,254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잠시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가족, 친척,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 ○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다문화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생애주기별로 자주 접하게 되는 43종의 민원신청서(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서식 30종(혼인·출생신고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 신청서, 예방접종 예진표 등, 국적·체류 관련 민원서식 13종(신원보증서, 귀화허가신청서 등))을 선정하여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였다. 특히, 책자 제작에 충남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분들이 직접 번역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 ● 7개 언어로 번역된 책자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주민자치센터, 시·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고용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8월에 발간된 책자는 충남지역의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273곳에 배포하였으며, 충청남도 다 문화 포털 사이트(충남다올림, <http://www.dawoolim.net>)사이트에 번역된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전국최초 다문화지원법 '7개 국어로' 도여성정책개발원, 베트남어 등 번역 '충남다울림'에 제공

● ○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민경자)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7개 국어로 번역해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구축한 다문화 포털 사이트 '충남다울림(www.dawoolim.net)'에는 국적취득, 교육, 출산 및 육아, 건강정보 등 한국 생활정보와 시·군별 지역 생활 정보,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과 통번역 인력현황 등을 소개한 자료실, 국가별 커뮤니티 등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다울림 사이트는 특히 다문화 관련 주요 언론 자료와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7개 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번역 게시된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오는 10월 시행되는데 그동안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됐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다울림'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등 7개 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본법령으로 2008년 제정돼 올해 여러 조항에서 내용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본법령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동안 육아, 요리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급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급정보들이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이주민 리더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포털사이트 '충남다울림' 캡처화면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정책과제 소개

- 충청남도 여성정책조정기구 창설 및 운영 방안 | 김영주
-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김종철
-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절차 및 기본 방향 | 김종철
- 충남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체계 강화 방안 | 김성자
- 충남도청 위원회 대상 성인지력 향상 방안 | 임우연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 안수영
- 충남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단 및 역량강화 방안 | 최은희
- 충남 이주민 포럼 설치 및 운영 방안 | 우복남
- 충남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제안 및 활용 방안 | 송미영
- 다문화가정 생활지침서 개발과 활용 방안 | 권금상
- 충청남도 시·군순회 여성영화제 추진 방안 | 김숙이
- 충남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관리센터 구축 방안 | 최은희·우주형

충청남도 여성정책조정기구 창설 및 운영 방안

◎ 김영주 (여성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성 주류화 전략의 효과적·실질적 추진과 여성 관련 정책의 중첩성과 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조정기구 창설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충청남도 여성정책조정기구의 창설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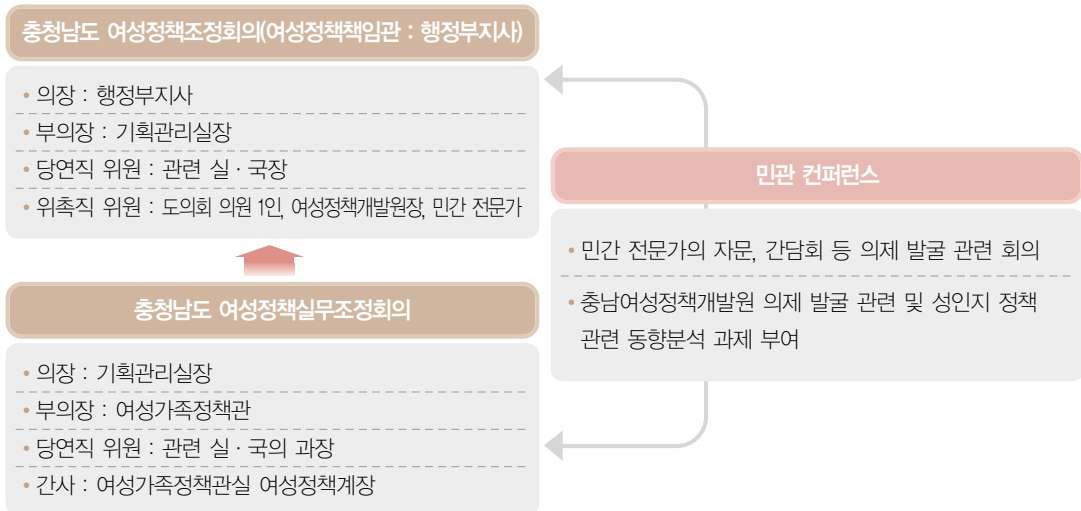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운영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운영 과정의 성과 및 한계를 제시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충청남도의 여성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방안으로 먼저 여성정책조정회의(가칭)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충청남도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 방안으로는 크게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과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여성정책책임관은 행정부지사, 여성정책실무책임관은 도의 실·국 과장으로 지정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여성정책책임관 및 실·국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및 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조정기구의 운영 방향은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참여범위(참여부서 및 간사)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기구가 항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민관 컨퍼런스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하여 성인지 정책 관련 동향파악과 회의에서의 논의되어야 할 의제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충청남도 여성정책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체계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충남은 제조업 유치, 특히 해외기업 유치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여왔지만, 제조업 중심의 유치는 종사자 95%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는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해 왔음.
- 콜센터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고,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콜센터 산업의 정착화에 따라 이 분야의 직종이 금융, 통신, 쇼핑, 정부투자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종화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초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충남으로서는 고학력 여성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01 제조업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지식 서비스 산업 전략 수립

02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 혹은 전세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03 콜센터 관련 조례 제정 혹은 기업지원 조례 개정

04 콜센터 유치 및 지원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

05 시·군별 차별화된 콜센터 유치 전략

06 지역특산품 판매 콜센터 및 지자체 콜센터 설치를 통한 유치 촉진

07 콜센터 관련학과 신설

-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에 각각 1개의 콜센터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시·군은 권역별로 1개씩 신설함
- 홍성/예산/청양을 묶어 홍성에 1개, 공주/부여를 묶어 공주에 1개, 서산/태안을 묶어 서산에 1개, 보령/서천을 묶어 보령에 1개, 논산/금산/계룡을 묶어 논산에 1개의 콜센터 관련학과를 신설함

08 단기과정의 콜센터 인력 양성

09 콜센터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10 콜센터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11 콜센터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시·군별 차별화된 콜센터 유치 전략

▶ 1등급 지역인 천안시 투자유치 전략

- 향후 2년 동안 500석 이상 유치 목표 설정
- 시설보조금지원 강화 혹은 전용 빌딩 구축
- 지자체 콜센터 설치
- 유치 전 단기 전문인력 양성
- 고용보조금 지원 강화
- 콜센터 관련학과 신설
- 전용건물 무상 임대

▶ 2등급 지역인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의 투자유치 전략

- 향후 2년 동안 300석 이상 유치 목표 설정
- 시설보조금지원 강화
- 입지보조금 지원 강화
- 지자체 콜센터 설치
- 고용보조금 지원 강화
- 전용건물 무상 임대
- 콜센터 관련학과 신설
- 유치 전 단기 전문인력 양성

▶ 3등급 지역인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지역의 유치전략

- 향후 2년 동안 200석 이상 유치 목표 설정
- 시설보조금지원 강화
- 콜센터 관련학과 신설
- 지역특산물 판매 및 관광안내 콜센터 설치
- 고용보조금 지원 강화
- 입지보조금 지원 강화
- 전용건물 무상 임대
- 유치 전 단기 전문인력 양성

▶ 4등급 지역인 기타 지역의 유치전략

- 향후 2년 동안 100석 이상 유치 목표 설정
- 시설보조금지원 강화
- 전용건물 무상 임대
- 고용보조금 지원 강화
- 입지보조금 지원 강화
- 지역특산물 판매 및 관광안내 콜센터 설치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절차 및 기본 방향

◎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도시를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리모델링 전략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내포신도시처럼 신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절차 및 내포신도시의 추진 전략인 8개의 특성화 전략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가치에 의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추진 절차

- 01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신청 주체 및 주무부서 선정
- 02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03 내포신도시 여성친화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관련 공무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 04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 05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06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07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고회 개최
- 08 내포신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내포신도시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특성화 전략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비고
“에코그린 시티”	• 하천, 근린공원, 녹지를 연계한 숲속 놀이터 조성	수정보완
	• 숲/문화 체험 지도자 양성(여성 일자리 창출)	추가
	• 숲 속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수정보완
	• 개방형 청소년 수련원 시설 설치	수정보완
	• 기존 구릉지 숲을 활용한 숲 체험 놀이터 조성	수정보완
	• 기존의 공원 설계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함	수정보완
“쾌적한 에너지 도시”	• 태양열 · 태양광 · 지열을 활용한 자연 순환단지로서의 거점화	기존
	• 태양열 · 태양광 · 지열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이용한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옥상을 녹색화한 건물/주택에 대한 인증	기존 (인증제추가)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에너지 교실 운영	추가
“자전거 천국도시”	• 자전거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추가
	• 자전거 이용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화	추가
	•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수정보완
“5無 도시”	• 쓰레기 관로 수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수송과 수집이 일체화된 형태로 수거	기존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외부로 열리는 공간에는 부지 녹화 및 경계부 수경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이미지 조성	기존
	• 행정타운 및 중심 상업지역 내 특정한 가로경관 형성이 요구되는 구역에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기존
	• 주거지역에서 2-5km 이내의 모텔 건립 혹은 모텔 입간판 설치 규제	추가
	• 인간 중심의 수평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	기존
“공공 디자인 도시”	• 성 평등한 안내 표지판 디자인, 제작, 설치	추가
	• 지역 정체성, 역사성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도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제공	기존
	• 버스 정류장, 가로등, 신호등, 벤치, 쉼터 등 공공시설물 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연출	기존
“문화관광도시”	•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중저층 청사건립에 따른 조망권 확보	기존
	• 휴여공원, 애항공원 등 가족친화 공원 조성	수정보완
	• 유관순 거리의 조성	추가
“교육특화도시”	• 충남, 홍성 · 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	기존
	•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외국어 공동 기숙사 설립 운영	추가
	• 지체 및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배리어 프리 학교 설계 및 운영	추가
	• 영재 교육원 설립 및 운영	추가
“안전도시”	• 무장애 도시 조성 -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 하히힐 신은 여성의 보행에 장애가 없는(Barrier Free)도시 조성	기존
	• 여성친화도시 건물 및 시설 인증제 도입 운영	추가

충남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체계 강화 방안

◎ 김성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성인지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수행기반 마련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충청남도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체계 및 추진과정과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수행체계 강화 방안으로 성인지 정책의 인프라가 되는 수행체계 구축 방안과 수행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착 요건을 제안하였다. 수행체계 구축방안으로 전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성인지 정책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 수행 및 관련 활동의 성과관리지표 반영, 환류체계 구축, 도에 전담실무자 배치를 제안하였다.

수행체계 정착 요건으로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의 제도화,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예산 확보 및 활용, 공무원교육원에 과목 개설,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충남도청 위원회 대상 성인지력 Gender-sensitivity 향상 방안

◎ 임우연 (여성정책실 연구원)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 제언을 담당하는 충남도청 위원회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력(Gender-sensitivity) 향상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성별영향평가분석법과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의 성평등적 관점의 증진을 위해, 위원회 역시 여성위원 참여율 증가는 물론,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으로 안건과 의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원에게 성인지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가 필요하지만, 현재 충남도는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이는데 그치고 있다. 본 정책과제의 우선 대상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위원의 참여를 권고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지침을 지시한 “30개 중점관리대상 위원회”이다. 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인지 정책의 소개 및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워크숍 실시,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정책 사례 제공, 충남도정을 반영한 성인지 정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서의 성별 관련성(Gender-relevance)을 찾아내고 현상을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며,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과 안목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위원들의 성평등의식 향상으로 도정의 성주류화 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 안수영 (여성정책실 연구원)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졸 여성의 취업 현실은 대졸 남성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003년부터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고학력 청년여성의 대표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여성 청년층의 커리어 개발과 성인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차세대 여성들이 진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경력개발 지원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및 젠더 친화성이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운영 방식에 통합되는 것이야말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간 연계성 확보와 커리어 맵의 종단적 구성, 다양한 젠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지역의 산업 특성과 전공계열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여성 취·창업 박람회 등 청년여성 경력개발 부스를 설치하고 센터 미지정 대학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여대생 진로설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충남 이주민 포럼 설치 및 운영 방안

◎ 우복남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이주민 정주역사가 긴 해외 여러 도시발전 사례들은 외국출신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없이 지역발전이 사실상 어려움을 보여주며, 우리 국가 정책의 주요과제로도 통합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이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의 중요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시민권 구현을 위한 정치·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시행 5년을 넘긴 시점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이고 화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소통,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이주민 및 그 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주민 포럼 설치 및 운영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기존 다문화 관련 포럼이 출생 한국인 주민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가 정책 의제 발굴과 대안 모색 과정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참여하는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충남 이주민 포럼은 역량 있는 이주민 개인 및 이주민 단체 대표들이 당사자 중심의 의제 발굴과 정책 담론 형성, 정책 제안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논의된 결과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충남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단 및 역량 강화 방안

◎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었다. 참여주체는 사회복지관련 공공·민간·이용자 등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대표 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복지관련 회의운영, 안건처리, 사무관리이며, 상근 간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복지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충남의 16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진단한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고, 협의체를 둘러싼 인적자원의 역량과 지역간 환경에 따른 편차가 있어 대상자 부문별, 업무 분야별 협치(governance)가 미숙하다는 것이다. 즉, 간사의 경우,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간사를 채용하고, 보수도 처우기준보다 낮게 지급하여 역할수행에 적합한 간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간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회의진행인데 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도 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체는 복지부의 지침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용 준수에 따른 강제성이 없어 시·군에 따라 운영비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이용자 간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관심부족, 민간의 수동적인 참여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공, 민간 등 모든 대상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협의체 관계자 대상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체 이해를 위한 정책결정자, 집행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과 총량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충남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제안 및 활용 방안

◎ 송미영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충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남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인구의 뚜렷한 증가 추세(581명(2010) → 723명(2011), 142명 증가)가 있고, 청장년층이 대부분(약 76%)이고, 여성의 비중이 높다(약 76%)。 둘째, 충남 조례에 의한 정착지원 사업이 시급하다. 향후 정책 주체가 변화되어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나원에서 나온 후 지역사회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는 현장위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제2항)에 근거하여 생활실태조사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통일부 생활실태 조사의 한계이다. 2011년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생활전반에 관한 욕구 중심의 조사문항이 부족하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은 정착, 취업, 건강, 가족생활 등 포괄적 범위의 생활실태조사 추진, 가족안정과 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 도출, 전문적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 추진 방향 설정시 고려해 볼 사항도 있다. 실태조사가 충남도정에 기여하는 결과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대상이 다르더라도 실태조사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여러 가지 정착지원 방안이 있으나, 현재 정착지원 방안이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착지원 방안이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조기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활용 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또는 시책 발굴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책욕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거주 및 정착 관련 정책 및 시책, 취업 관련 등에 관한 정책 및 시책, 정체성 및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 등에 관한 정책 및 시책, 가족생활 등에 관한 정책 및 시책, 여가생활 등에 관한 정책 및 시책, 교육 등에 관한 정책 및 시책 등이다. 둘째,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3년마다 실태조사(혹은 1년, 2년)를 시행한다면, 충남 북한이탈주민의 횡적인 생활실태조사 자료와 종적인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횡적인 자료구축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및 시책을 구상할 수 있으며 종적인 자료구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구축된 기초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음. 또한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도출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생활지침서 개발과 활용 방안

◎ 권금상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단위의 사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실천 지침서를 개발하고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늘어가는 다문화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어도 이주여성을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와 갈등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지침이나 가족들을 위한 생활지침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생활지침서의 개발방향은 배우자 간 쌍방향성 인권의식 증진을 촉진, 기존 인권 매뉴얼에서 가족영역의 요소와 다문화가정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 발생 요소의 인식, 일상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자기 변화를 주도하며 실천 가능한 내용, 다문화가족의 인권인식과 사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내용과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도 이해 용이한 쉬운 내용과 그림을 삽입하여 구성하였다.

지침서의 기본 요소로는 인권의 기초개념을 사회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 등의 안내를 담고 있다.

활용 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방문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다문화가정과 접촉하는 기관 및 활동가들이 지역 다문화 가정에 배포하여 지침서를 부부가 6개월 동안 매달 말일 체크하도록 숙지시키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 점검이나 자기 반성적인 성찰을 이루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실시한 가정으로부터 생활지침에 관한 적용 효과를 평가받고 개선의견 수렴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발굴하여 다문화 인권인식을 확산한다.

* 생활지침서의 단계별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개념 파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인지적 이해와 자기생활 분석 및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현의 생활적용
생활 지침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와 차별의 인식 ■ 자유로운 자기표현 ■ 인종차별로부터 자유 ■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 ■ 신체의 권리 ■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자기표현 ■ 가족공동체의 민주적 참여 ■ 평화와 비폭력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정으로부터 생활지침에 관한 적용 효과를 평가 반영하여 수정하기 ■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된 가정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인권 인식 개선의 모범 사례로 추천하기 ■ 인식이 변화된 사례의 더 많은 가정들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운동차원으로 확산하기 		

충청남도 시·군 순회 여성영화제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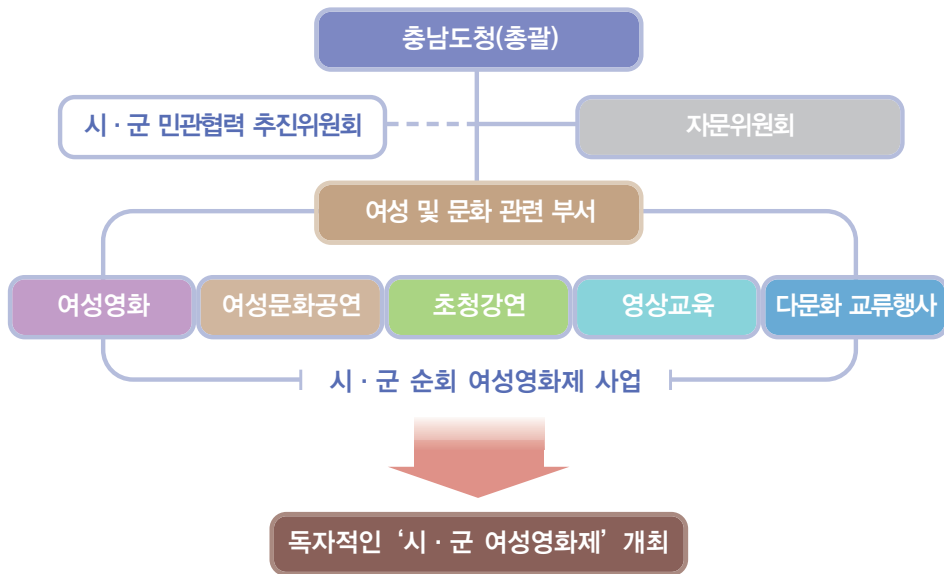
◎ 김숙이 (여성정책실 연구원)

전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지역축제가 붐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여성영화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 인천, 천안, 제주, 광주, 익산 등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되어 10여 개가 열리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커서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단순히 여가선용이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넘어 보편적인 삶의 권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군 지역은 관람희망 수요가 1순위인 영화를 향유하는 데에도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충남 시·군 단위 지역 여성들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남 시·군 순회 여성영화제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영화제는 시·군 단위에서 양질의 문화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획과 홍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여성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영상교육과 영화공모제, 영화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소비를 넘어 여성문화생산과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여성영화는 딱딱한 강의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여 성평등 의식 교육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충남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관리센터 구축 방안

◎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양적공급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급되는 복지보건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분석이 요구되며, 지역 주민이 한 접근창구를 통해 자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보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관리센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One-stop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 팀에 의한 사례관리, 단계별 사례관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1-1」시스템은 콜센터로 전화를 통해 휴먼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호예방, 종합상담, 권리옹호 등 포괄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는 어떤 부처의 정책이든 관계없이 국민이 일원화된 통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의 욕구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는 그물망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1차 인테이크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정보제공보다는 사례관리 특히, 집중과 긴급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복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과 공급자의 서비스 통합성(Integration)을 제공한다는 것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보접근이 매우 어려워 접근성을 확보하는 자체가 복지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단일 접근 창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콜센터 기능과 복지대상자별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충남에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관리센터(가칭, 이하 '복지서비스 센터'라 함)를 설치하여, 상담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하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16개 시·군을 5개 권역별로 분류하여 지방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보건 서비스의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복지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종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확대하고, 향후 복지대상자별 재활·치료·상담 등 전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수요자 욕구파악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보건서비스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CEO 릴레이 포럼

● ○ ● 2011년 4월 27일~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족친화기업 경영 사례 소개를 통한 일·가정 양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충청남도(주최), 아이날기좋은세상운동본부·충남여성정책개발원(주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IBK 기업은행·충남북부상공회의소(후원) 공동으로 충남 CEO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기초강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인사말씀



2700
구상

● ○ ● 4월 27일 행사에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김용웅 회장, 아이날기좋은세상충남운동본부 이종수 회장,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농협충남지역 신충식 본부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민경자 원장 6명의 VIP와 성무용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나소열 서천군 군수 등 지자체장 및 부 단체장 16명, 동아제약, 대진디엠피, 예산농산, 게런티제약, 포쉬에화장품, 삼육식품, LS산전, 삼성전자, 애터미, 청정원, 한국프라마스, 종근당, 광암섬유, LS산전, 해태제과, 롯데삼강, 청화산업개발, 홍성브레이크, SKCHaas, 다이모스, 에스에프에이, 디바이스이엔지, 대원환경, 에이플러스씨엠, 경남제약, 대한칼소닉 등 기업체 CEO 및 임원 27명, 기업체 임병철 이사, 나사렛 대학교 임승안 총장 등 5명, 의료원/병원 원장 등 15명, 공공기관 11명 등 123명이 참여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기업체 및 자치단체, 공공 기관, 대학, 의료원 등에서 63명이 참여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관련 업체 수가 많으므로 중소 제조업체에 적합한 가족친화기업 경영 사례 소개를 통한 확산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컸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강연

「아이날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저출산특목 삼진대회

충남 CEO 포럼

■ 일시 : 2011년 4월 27일 (수) - 4월 28일 (목) ■ 장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 주관 : 아이날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후원 : 고용노동부, 충청가족부, IBK기업은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도의원 성인지력^{性認知力} 향상 교육 - “性別影響評價와 지방의원의 역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원장 민경자) 주관으로 충남 도의회 의원(45명)의 성인지력(性認知力) 향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월 11일(수), 오후 3시에 충남도청 의원 휴게실에서 연찬이 실시되었다.



- ○ ● 이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도의원의 성인지력(性認知力)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과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의정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양성평등적인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개발원이 계획한 것이다. 민경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원들의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 입안과 나아가 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산부 우선 표지판 보급 프로젝트

아이낳기좋은세상충남운동본부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2011년 5월 ~ 2011년 12월에 걸쳐 임산부 우선 표지판 보급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의 활용, 임산부 배려를 통한 임산부의 올바른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임산부 우선 배려 창구 표지판, 임산부 우선 배려 배너 표지판, 임산부 배려 주차장 표지판 3종류를 제작 보급하였다.

구분	임산부 우선 배려 창구 표지판	임산부 배려 주차장 표지판	임산부 우선 배려 배너 표지판
천안시	35	30	12
농 협	40		40
합 계	75	30	52



임산부 우선 배려 창구 표지판, 주차장 표지판, 홍보 배너

공공기관 미혼 남녀 파트너십 개발

● ○ ● 10월 28일 (9:30~18:00)에 충청남도 공공기관 종사자 중 미혼 남녀(공무원, 교사, 경찰 등 16명을 대상으로 본원 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미혼 남녀 파트너십 교육이 실시되었다.

● ○ ●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며,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 이후 여성이 부담하게 될 일방적인 가사와 자녀양육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과의 결혼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의 제고와 바람직한 결혼 및 부부관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01



01) 05) 여성의원 연찬회 02) 03) 충남여성단체장 리더십 교육 04) 영유아기 자녀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원 연찬회부터, 아동성교육,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개원 12주년 기념세미나, 성별영향평가 시·군 순회 교육에 이르기까지 본원의 2011년, 1년간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여성을 위한 움직임

20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활동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월

- 여성의원 연찬회

3월

- 영유아기 자녀 양성평등 교육

4월

- 충남여성단체장 리더십 교육

5월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보수 교육



01



02

01) 한마음
02) 민선5기 기자간담회



01



02

01)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 교육
02) 다문화정책 내부 토론회

03)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03



6월

- 민선5기 기자간담회

7월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2주년 기념세미나
-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 교육

8월

-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다문화 정책 개선 워크숍

9월

- 성별영향평가 환류 워크숍

10월

-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 한국복지분권심포지엄
- 아동성교육
- 공공기관 미혼 남녀 파트너십 교육

11월

- 다문화업무 종사자 워크숍
- 여성영화

12월

- 마을기업 세미나전
-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01



02



03

0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2주년 기념세미나 02) 성별영향평가 환류 워크숍 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04)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는 2003년 11월 2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여 지난 8년여간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진행을 통해 도민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충청남도 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의 발자취

2003년 7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되어 2003년 11월 25일 개소한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는 충남 소재 1,876(2012. 2. 10기준)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보육정보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앙 및 시·군간 보육정보망 연결 등 충남지역 보육의 종합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충남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손지연 센터장과 공채를 통해 발탁된 사무장을 비롯하여 운영·교육·상담홍보, 대체교사 사업팀 등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여성·보육문제를 통합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보육의 정보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기 양성평등 워크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지난 2011년 2월부터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11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교육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신규 및 재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주 내용은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042-825-3473~4) 홈페이지(<http://chungnam.childcare.go.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 교육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11년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8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교육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의 기초에 대한 내용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 내용 및 교사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분들께 표준보육과정의 기초 및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아기 양성평등 워크숍 실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공동으로 2011년 육아지원사업 유아기 양성평등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2011년 6월 29일(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강당에서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에 관심 있는 보육관계자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하여 어린이를 창의력 있는 유연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는 보육정책의 변화를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 양성평등 부모 교육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기 자녀 양성평등 부모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2011년 3월 18일(금) 서천 지역을 시작으로 13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충청남도 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은 민경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강사의 강의로 교육 내용은 성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성평등한 양육태도 함양을 통하여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으로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8회 충청남도 우수 보육 교재·교구 작품전시회

지난 9월, 본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흥미영역 통합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개발하여 훌륭한 우수한 교재·교구의 평가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라게 하는 다양한 교재·교구의 정보 공유를 통한 영유아의 발전된 보육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사에는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는 이외에도 2011년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대상 안전·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표준보육과정 세부심화 교육, 영유아기 양성평등 교사 교육,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임파워먼트 교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심화 교육, 만 5세 누리과정 사전설명회, 다문화 지원, 장애아 보육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 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http://www.insung.or.kr>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유아체험교육기관으로
 특성화된 계절별,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도내 유아들과 만나고 있다.





2011년 주요활동

맞춤식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유아인성교육은 기본교육과 기획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체험교육을 통해 자연과 만나 교감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10,000명이 넘는 유아들이 다녀갔다.

- 기본교육 : 「전통문화」, 「자연생태」, 「창작예술」, 「전통예절」, 「교통안전」
- 기획교육 : 「흙으로 만나는 세상」, 「색깔 놀이터」, 「옛날 옛적에」, 「공주 한옥마을과 함께 하는 1박 2일 여름캠프」, 「양성평등 교육 -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특히 올해는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통불편 지역에서 「찾아가는 교육 - 국악 창작극 우르르 광광! 천둥 먹은 호랑이」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기획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눈높이 교육에 한발 더 다가갔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 교육, 학부모 교육, 초등아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지원을 하였다.

2012년 인성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참여하려면.....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홈페이지(<http://www.insung.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가비용 : 무료
- 교육 일 : 화~금
- 교육대상 : 만3세(5세)~만5세(7세)
- 교육일정

시 간	활동 내용
~10:30	도착 및 입소
10:30~12:00	오전 체험활동
12:00~13:00	점심 및 자유놀이
13:00~14:30	오후 체험활동
14:30~15:00	간식 및 퇴소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는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센터로 충남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자원봉사센터의 발자취

- 2003. 6. 25 道 자원봉사센터 개소 · 운영형태 : 道 직영(자원봉사담당 겸임)
-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2006. 8. 21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 2007. 1. 2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7. 3. 31 제1기 위/수탁 협약 체결 (충청남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7. 4. 1 - 2009. 3. 31)
- 2007. 4. 1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설립(민간위탁)
- 2007. 6. 21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소식
- 2009. 3. 31 제2기 위/수탁 협약 체결 (충청남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9. 4. 1 - 2012. 3. 31)
- 2011. 7. 22 제3대 안승화 센터장 취임



2011년 주요활동

2011년도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사회 저변에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네트워크사업을 강화하여 1+3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음.

또한, 지역센터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센터 컨설팅사업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남도 자원봉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목표달성(220,000명 → 267,811명)
 - 센터 개소 이후 213,811명 증가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교육 등 성공개최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2회, 750명) 및 발대식 개최
- 교육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봉사활동의 질적 변화 추구
 - 청소년, 시민리더, 노인, 관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31회 4,789명 수료
- 지역 자원봉사센터 컨설팅 사업 추진 (4개 센터)
- '충청남도 자원봉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



2011년 여성의원들의 도정질문





김장옥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하여(제9대 제247회, 2011. 12. 1) 도내 아동 복지와 청소년 복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도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종합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후교실 운영계획, 청소년 문화 센터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관련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간식비를 확대하는 등 영·유아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박영송

저출산 시대에 충남 서북부 지역에 분만실이 부족하여 타지역에 원정출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산의료원의 분만실 개설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하여 부서마다 각각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T/F팀에서 기능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의 장애인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생산물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 중 모범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숙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표류문제에 대한 대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하여 충청권 입지가 무산될 경우에 대응전략은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충남도립청양대학 교수정원 확보와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시간강사로 인상에 대한 예산지원 의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운영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지나치게 관주도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아름다운 가게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미숙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과 시설입소 관련하여 충남의 장애인 입소시설 확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확대가 필요한데, 16개 시·군 중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에 생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충남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통계예산이 감소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지역통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노인 자살률 현황과 원인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2011년도 세부 사업



연구사업

기본연구 과제

번호	주제	과 제 명	담당자
1	성평등 성주류화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임우연
2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김종철
3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심층 성별영향평가	김성자
4		충남 청소년시설 운영 심층 성별영향평가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김숙이
5	여성 가족	지역 기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안수영
6		충남 탈 성매매 여성의 효과적 자활을 위한 정책 방안	김영주
7	복지 다문화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주여성의 참여를 중심으로-	권금상
8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우복남
9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제도 비교 연구	최은희
10		충남 여성노인의 사회적 통합 방안	송미영

정책과제

번호	주제	과 제 명	담당자
1	성평등 성주류화	충청남도 여성정책 조정기구 창설 및 운영 방안	김영주
2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절차 및 기본방향	김종철
3		충남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체계 강화 방안	김성자
4	여성가족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김종철
5		충남도청 위원회 대상 성인지력(gender-sensitivity) 향상 방안	임우연
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안수영
7		충청남도 시·군 순회 여성영화제 추진 방안	김숙이
8	복지	충남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단 및 역량 강화 방안	최은희
9		충남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관리센터 구축 방안	최은희·우주형
10		충남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제언 및 활용 방안	송미영
11	다문화	충남 이주민 포럼 설치 및 운영 방안	우복남
12		다문화가족 생활지침서 개발과 활용 방안	권금상

현안과제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유관순상 발전 방안 연구	김종철
2	지역수요별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안수영
3	2011년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황창연 · 김영주 · 김성자
4	2011년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황창연
5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평가매뉴얼 개발	김성자
6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통합 운영 방안	김성자
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김종철 · 임우연
8	광역(거점)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운영 방안	최은희 · 김영주
9	충남 여성포럼 활성화 방안	김영주
10	2011년 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김영주 · 김성자 · 김종철
11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김종철
1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평가지표 개발	김영주 · 임우연
13	인지장애 어르신 대응 매뉴얼 개발	송미영
14	2011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송미영 · 최은희

수탁과제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201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	김영주 외 7
2	다문화어울림사업 평가	우복남
3	복지보건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최은희 외 5
4	충청남도 자원봉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최은희 외 2

2011년도 세부 사업



교육사업

기본교육

번호	주제	과제명	담당자
1		공무원 성인지 교육	김성자
2		충청남도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임우연
3	성인지 성평등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당진)	김성자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금산)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홍성)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보령)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공주)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계룡)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예산)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부여)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천안)	
4		시·군 순회 성별영향평가 교육 (1차 : 공주, 논산, 계룡, 금산)	김종철
		시·군 순회 성별영향평가 교육 (2차 : 보령, 부여, 청양, 서천)	
		시·군 순회 성별영향평가 교육 (3차 : 천안, 아산, 연기)	
		시·군 순회 성별영향평가 교육 (4차 : 서산, 홍성, 당진, 예산, 태안)	
5		공공기관 미혼 남녀 파트너십 개발 과정	김종철
6		시·군 순회 학부모 대상 유아기 성평등 교육 (보육정보센터와 공동추진)	최은희
7		아동복지시설 아동 성교육	김숙이
8	역량 강화	여성의원 연찬회 (1박2일)	황창연
9		여성단체장 리더십 교육	임우연
10		지역여성 활동가 육성을 위한 시·군 순회 리더십 교육	김영주 외 9
11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보수 교육	최은희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박 2일)	송미영
13	여성사회 참여확대	의정 모니터 양성 교육	임우연
14		경력단절 여성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직업체험강사과정, 여성취업매니저과정)	안수영

현안교육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2011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워크숍	김성자

수탁교육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업무 역량 강화 교육	최은희
2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 교육	우복남
3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권금상
4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육 (1차 : 천안 모이세)	권금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육 (2차 : 보령가정협회 보령시지회)	
5	2011년도 충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행 활성화 컨설팅	김영주 외 2



연구조성 사업

세미나 & 워크숍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유아기 양성평등 워크숍 (보육정보센터와 공동주관)	최은희
2	성별영향평가 환류 워크숍	김성자
3	개원 12주년 기념세미나 "여성정책의 위기와 전환기의 새로운 방향 설정"	김영주
4	여성 귀농인 워크숍	김영주
5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권역별 컨퍼런스 개최	임우연
6	젠더 관점과 복지국가 대토론회(복지국가로 가는 길, 여성과 함께)	최은희
7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2011 공동 워크숍	최은희
8	복지보건전달체계 진단 워크숍 (2011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 심포지엄)	송미영
9	다문화업무 종사자 워크숍	송미영
10	다문화 정책 개선 워크숍 "국제 결혼 가정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우복남
11	일본 고베대학과의 공동 워크숍	김영주
12	여성 일자리 사업 확충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방안	안수영
13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김종철

2011년도 세부 사업

포럼

번호	주제	과 제 명	담당자
1	젠더&복지포럼	1차 :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역할 정립 방안	최은희
2		2차 : 사회복지 포럼	최은희
3	여성 일자리포럼	1차 : 지역 경력단절 여성 취업의 과제와 전망	안수영
4		2차 :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	김숙이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 CEO 릴레이 포럼 사업		김종철

관련부서와의 정책 워크숍

번호	과 제 명	담당자
1	민선 5기 1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의 간담회)	김영주
2	2012년도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내부 워크숍	김영주



교류협력 사업

번호	과제명	담당자	
1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교류 사업		
2	키타큐슈 아시아여성연구포럼(KFAW) 교류 사업		
	- 기타큐슈 방문 및 회의	김영주	
3	- 제22회 키타큐슈 아시아 여성회의	최은희	
	충남여성포럼 교류협력 사업	김영주	
4	3군 본부 여성정책 담당부서와의 협력방안 모색 간담회	김영주	
5	시군여성 활성화 참여넷	함께하는 천안 여성들의 유쾌한 소통(참여넷) - 천안시	김영주
6		여성의 자원활동과 우리 마을 만들기(참여넷) - 아산시	임우연 · 안수영
7		여성들의 풀뿌리 활동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공주시	김숙이
8		참여하는 충남여성 네트워크 보령시 참여넷 - 보령시	최은희
9		활기찬 청양을 위한 여성들의 소통 - 청양군	김성자 · 우복남
10		여성 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계룡시	권금상
11		서산 여성 활동가들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 서산시	우복남

번호	과제명		담당자
12	시군여성	논산 지역 여성 활동가의 우리 마을 만들기 - 논산시	임우연 · 안수영
13	활성화	서천군 여성들의 연대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 - 서천군	송미영
14	참여넷	당진군 참여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 당진군	김종철
15	충남 여성인력개발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1차 여성인력개발실무자 회의		안수영
	충남 여성인력개발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2차 여성인력개발실무자 회의		안수영
16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영화상영회 - 할머니와 란제리		김숙이
17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운영 사업		최은희 · 송미영



연구 역량 강화

번호	과제명		담당자
1	여성학/여성정책 아카데미 -1차 "여성의 삶과 생활 속의 페미니즘" -2차 "젠더와 미술" / 3차 "젠더와 역사" -4차 "젠더와 평화" / 5차 "글로벌/아시아 페미니즘"		김영주
2	여성인권 분야	1차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 및 최근 동향" 2차 "가정폭력에 관한 최근 이슈 및 정책 개선점" 3차 "성매매에 관한 최근 이슈 및 정책 개선점" 4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의 실태와 문제"	김영주
3	다문화 분야	1차 "다문화와 인권" 2차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3차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	우복남
4	복지국가 분야	1차 "장애인 복지환경 변화와 실천" 2차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 방안" 3차 "젠더와 복지국가"	송미영
5	성인지 예산		김영주 외
6	콜로키움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에 대한 이해	
		개발원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 및 개선 방안	
7	정책토론	다문화 정책 내부 토론회	우복남

2011년도 세부 사업

06

홍보 사업

번호	구분	과제명	비고
1	본원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2		뉴스레터 발간	
3		『충남여성』 소식지 발간	
4		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5		홍보 동영상 제작	
6		리플렛 및 팸플렛 제작	
7		충남다문화포털사이트 운영	
8	정책홍보	임산부 권리선언 MOU 체결을 통한 임산부 우선 표지판 보급 프로젝트	수탁
9		언론에 칼럼 게재	

07

기타

번호	구분	과제명	담당자	비고
1	교육자료 개발	성인지/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김영주	
2	교육지원(강의지원)	자원봉사센터 시·군센터직원 성평등교육 2회 강의	민경자 원장	
3	번역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사업	송미영	
4	연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수	우복남	
5	정책 제언집 발간	2011 정책제언 : 성평등 성주류화 ·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김영주 외	
6	조사	청·청 희망찾아 날자 프로그램 설문조사	김영주	수탁
7	조사	3C 다문화가정 자녀 통합지원 프로그램 설문조사	우복남	수탁

2012년도 세부 사업계획(안)



연구 사업 【 9件 】

구분	연번	과 제 명
기본연구	1	충남 농업정책 심층성별영향분석
	2	충남 노인 정책 심층성별영향분석
	3	충남 장애인 정책 심층성별영향분석
	4	사회적 기업의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5	충남 비혼모 지원 정책 방안
	6	충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자리 실태 조사 연구
	7	충남 북한이탈여성 지역사회 정착 현황과 지원 방안
	8	충남 다문화 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안 연구
	9	지방자치 20년 충남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
정책보고서	정책보고서 11건	



교육 사업 【 14件 / 1,096명 】

연번	과 정 명	교육 대상	인원(명)
1	시·군별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순회 교육	16개 시·군 공무원	800
2	여성위원 성인지 교육	도 30개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여성위원	30
3	공무원 성인지 예산 교육	도 및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	30
4	관리직(5급 이상) 대상 성인지 교육	도 사무관 및 시·군 계장급 이상 공무원	30
5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 교육	성평등 관련 지역 활동 경력자	20
6	성별영향평가 심층 컨설팅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30
7	여성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여성긴급전화 등 여성인권 관련 인권활동가	20
8	인력개발기관 종사자 HRD 교육	도내 인력개발 및 일자리 업무 담당자	15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역량 강화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16
10	충남 이주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도내 이주여성 리더	15
11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충남지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
12	의정 모니터 양성 교육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활동가 등 관심 여성	20
13	공공기관 종사자 미혼 남녀 파트너십 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미혼 남녀	20
14	노인대상 마을 공동체 활성을 위한 교육	지역 여성 노인	20

2012년도 세부 사업계획(안)

03

연구조성 사업 【 14件 】

구분	연번	사 업 명
세미나 & 워크숍	1	개원 13주년 기념세미나
	2	다문화정책 세미나
	3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워크숍
	4	관련부서와의 정책 워크숍 (여성가족/복지/다문화)
	5	시·군별 찾아가는 정책 자문 워크숍
포럼	6	여성 일자리 포럼
	7	복지 & 젠더 포럼
교류 협력	8	여성인력개발 실무자 회의
	9	다문화정책 간담회
	10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방안 토론회
	11	참여넷 구축 및 운영
	12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운영 사업
	13	국·내외 연구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
연구 역량 강화	14	콜로키움

04

홍보 사업 【 5件 】

연번	사 업 명
1	홈페이지 운영
2	뉴스레터 운영
3	「충남여성」 소식지 발간
4	정책동향분석 (이슈 브리프) 발간
5	여성·가족·다문화·복지분야 전문가 컬럼 등 언론 게재